

히스기야의 산당 제거(왕하 18:4)와 여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히브리 성서(MT)와 우리말 번역 성서의 비교—

이상원*

1. 들어가는 말

열왕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계속해서 왕들이 틀에 박힌 문장으로 평가 받는다는 것이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는 야훼의 눈에 선을/악을 행하였다”(עשה הישר/הרע בעיני יהוה)로 시작하고 흔히 평가 근거가 뒤따라 나온다. 남유다 왕들은 무엇보다도 산당 제의와 관련하여 평가 받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하여 평가 받는다. 산당을 세우거나 산당 제의를 행한 남유다 왕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왕들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의 긍정적 평가는 제한된다. 반면에 산당을 제거한 왕들은 제한 없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북이스라엘 왕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¹⁾ 이렇게 산당 제의와 여로보암의 죄는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 주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열왕기가 어떤 특정한 역사 신학에 의해 일관성 있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직까지 학계에는 열왕기가 언제, 얼마의 분량으로 처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그렇지만 두 중심 주제, 산당 제의와 여로보암의 죄가 열왕기의 첫 번째 문학 층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뜻이 하

* Universität Tübinge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sangwon83@hanmail.net. 이 글은 2015년 10월 20일에 독일 튀빙엔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받아들여진 저자의 논문 “Den Ort, den JHWH erwählen wird..., sollt ihr aufsuchen (Dtn 12,5). Die Forderung der Kulteinheit i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의 일부를 뽑아내어 썼다. 왕상 12:26-32와 왕하 18:4에 대한 분석이 그럭하다.

1) 엘라(왕상 16:12-13), 예후(왕하 10:28-29), 살룸(왕하 15:13-14), 호세아(왕하 17:2)의 경우는 제외.

나로 모아진다. 하지만 이 두 주제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산당 제의와 여로보암의 죄를 각각 두 단계로 나눈다. 곧 ‘제의 단일화’(신 12장)에 대한 불순종과 ‘제의 정화’(제 1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구별한다. 제의 단일화는 열왕기의 첫 문학 층에 나타나는 신학적 평가 기준으로, 제의 정화는 나중에 덧붙여진 본문들의 것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처음으로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평가 본문인 열왕기하 18:4를 서로 다른 두 문학 층으로 나눈다. 이 구절의 산당 제의를 제의 단일화와 제의 정화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 관한 열왕기상 12:26-32를 제의 단일화와 제의 정화와 관련한 단락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시기의 것으로 분리한다(이를테면 I. W. Provan, R. G. Kratz, E. Aurelius, K. Schmid, F. Blanco Wißmann 등).²⁾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요즘 학자들이 열왕기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는 일부 주제에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말 번역 성서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히스기야의 제의 개혁에 관한 구절인 열왕기하 18:4의 문학적 통일성을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서로 다른 두 문학 층으로 나눌 수 있는지 따져 볼 것이다. 다음으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인 열왕기상 12:26-32를 분석할 것이다.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본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 성서와 한글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말 번역 성서가 성서 본문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혹은 새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2. 히스기야의 산당 제거(왕하 18:4)

2) 이를테면 I. W. Provan,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ZAW 172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R. G. Kratz, *Die Komposition der erzählend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Grundwissen der Bibelkritik*, UTB 2157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0); E. Aurelius, *Zukunft jenseits des Gerichts.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zum Enneateuch*, BZAW 319 (Berlin; New York: de Gruyter, 2003); K. Schmid, “Das Deuteronomium innerhalb der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in Gen-2Kön”, E. Otto und R. Achenbach, hg., *Das Deuteronomium zwischen Pentateuch und Deuteronomistischem Geschichtswerk*, FRLANT 20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F. Blanco Wißmann, «*Er tat das Rechte ...*». *Beurteilungskriterien und Deuteronomismus in 1 Kön 12-2 Kön 25*, AThANT 93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2008).

2.1. 열왕기하 18:4의 문학적 통일성

히스기야의 제의 개혁을 전하고 있는 열왕기하 18:4의 문학적 통일성과 기록 시기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하지만 느후스단 제거에 관한 것(4d-f)³⁾은 바벨론 포로 이전 자료에 근거하여 포로기에 기록되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뜻을 모으고 있다.⁴⁾

열왕기하 18:4의 문학적 통일성을 부인하는 학자들 가운데 특히 주상(4b)과 아쉐라 제거(4c)에 관한 것을 나중의 것으로 떼어내는 경우가 있다(I. W. Provan, L. Camp, E. Eynikel, E. Aurelius, F. Blanco Wißmann, B. D. Thomas 등).⁵⁾ 곧 열왕기하 18:4에서 산당(4a)과 느후스단 제거(4d-f)만 열왕기의 첫 편집 층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는 동사 형태 *w^eqatal*의 시기적 자리매김과 두 주제, 제의 단일화와 제의 정화를 서로 다른 문학 층으로 나누는 것에 근거한다.

2.1.1. 열왕기하 18:4의 동사 형태 *w^eqatal*

히브리 동사 형태 *w^eqatal*은 전통적으로 ‘바브 접속사와 결합된 완료’(perfectum copulativum)로서 주로 포로기 이후의 본문에서 ‘내러티브 형식’(Narrativ-Form [*wayyiqtol*])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이 동사 형태가 있는 구절은 포로기 이후의 것으로 여기곤 했다.⁶⁾ 그런데

3) 이 글에서는 성서 구절의 절 구분을 히브리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에 따라 나누지 않고, 볼프강 리히터(W. Richter)가 *Biblia Hebraica transcripta*에서 히브리 문장에 따라 구분한 것을 밑받침으로 삼는다(W. Richter, *Biblia Hebraica transcripta* 6. 1 und 2 Könige, ATSAT 33.6 [St. Ottilien: EOS-Verlag, 1991]). 히브리 문장을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a, b, c 등으로 표시한다.

4)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172-173(각주 33), 420; L. Camp, *Hiskija und Hiskijabild. Analyse und Interpretation von 2 Kön 18-20*, MThA 9 (Altenberge: Telos-Verlag, 1990), 75-76, 85-86; E. Aurelius, *Zukunft jenseits des Gerichts*, 16; F. Blanco Wißmann, «*Er tat das Rechte ...*», 77-78, 각주 393.

5) I. W. Provan,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85-86; L. Camp, *Hiskija und Hiskijabild*, 74-87;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TS 33 (Leiden: Brill, 1996), 110; E. Aurelius, *Zukunft jenseits des Gerichts*, 16(각주 51); F. Blanco Wißmann, «*Er tat das Rechte ...*», 77-78(각주 393); B. D. Thomas, *Hezekiah and the Compositional History of the Book Kings*, FAT 2. 63 (Tübingen: Mohr Siebeck, 2014), 320-343, 436.

6) B. Stade, “Miscellen. 10. Anmerkungen zu 2 Kö. 10-14”, *ZAW* 5 (1885) = B. Stade, *Ausgewählte Akademische Reden und Abhandlungen*, 2nd ed. (Gießen: Töpelmann, 1907), 194-195; H. Hollenstein, “Literarkritische Erwägungen zum Bericht über die Reformmaßnahmen Josias 2 Kön. XXIII 4ff.”, *VT* 27 (1977), 321-336; I. W. Provan,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86; E. Würthwein, *Die Bücher der Könige. 1.Kön.17-2.Kön.25*, ATD 11,2 (Göttingen: Vandenhoeck &

요즈음 만프레드 바이퍼트(M. Weippert)는 옛 히브리말에서 *w^eqatal*은 바브 접속사와 결합된 완료가 아니라 ‘완료 연속’(perfectum consecutivum)으로서 ‘내러티브 형식’(wayyiqtol)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⁷⁾ 나아가 에어하르트 블룸(E. Blum)에 따르면, 옛 히브리말에서 *w^eqatal*과 *yiqtol*은 서로 비슷하게 쓰였다. *w^eqatal*의 쓰임새가 이른바 ‘연속 형태’ 또는 *yiqtol*의 시제를 이어가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블룸에 따르면, 두 동사 형태 *w^eqatal*과 *yiqtol*은 옛 히브리 내러티브 본문에서 ‘미완료’(Imperfektiv)의 모든 의미를 대신할 수 있다. 곧 과거 시제 문장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앞서 표현된 행동이나 상황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음을 보여줄 수 있다.⁹⁾ *w^eqatal*의 쓰임새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동사 형태만으로는 이것으로 표현된 문장들을 포로기 이후의 본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열왕기하 18:4에 있는 *w^eqatal*은 주상(4b)과 아쉐라(4c)가 산당(4a)과 함께 제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발굴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산당”(במה)은 주상과 아쉐라와 함께 설치된 일종의 단(壇)과 같은 제의 장소를 가리킨다.¹⁰⁾ 산당과 주상과 아쉐라는 한 덩어리로서 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제의 장소인 산당을 제거할 때 그곳에 함께 설치된 시설물인 주상과 아쉐라를 같이 제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4c에 이어서 *w^eqatal*로 표현된 느후스단(4d-f) 제거도 주상과 아쉐라 제거와 함께 일어난

Ruprecht, 1984), 411; J. Pakkala, “Why the Cult Reforms in Judah Probably Did not Happen”, R. G. Kratz and H. Spieckermann, eds., *One God – One Cult – One Nation. Archaeological and Biblical Perspectives*, BZAW 405 (Berlin; New York: de Gruyter, 2010), 215-216.

7) M. Weippert, “Die Petition eines Erntearbeiters aus *Maṣad Ḥāšavyāhū* und die Syntax althebräischer erzählender Prosa”, E. Blum, hg., *Die hebräische Bibel und ihre zweifache Nachgeschichte (FS R. Rendtorff)*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0), 449-466 (특히 457, 465-466).

8) E. Blum, “Das althebräische Verbalsystem – eine synchrone Analyse”, O. Dyma und A. Michel, hg., *Sprachliche Tiefe – Theologische Weite*, BThSt 9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123.

9) E. Blum, “Das althebräische Verbalsystem – eine synchrone Analyse”, 123-127. 히브리 동사 형태 *w^eqatal* 과 *yiqtol* 의 ‘양태적 장치’에 대하여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 『성경원문연구』 38 (2015), 109-112 참고.

10) O. Keel and C. Uehlinger, *Göttinnen, Götter und Gottessymbole. Neue Erkenntnisse zur Religionsgeschichte Kanaans und Israels aufgrund bislang unerschlossener ikonographischer Quellen*, 4th ed., QD 134 (Freiburg i.B.: Herder, 1998), 538-539; D. Jericke, *Regionaler Kult und lokaler Kult. Studien zur Kult- und Religionsgeschichte Israels und Judas im 9. und 8. Jahrhundert v. Chr.*, ADPV 39 (Wiesbaden: Harrassowitz, 2010), 121-140.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추리면, 4절에 있는 *w^eqatal*에 근거하여 히스기야의 개혁적 조치들을 서로 다른 시기의 문학 층으로 분류할 수 없다.

2.1.2. 제의 단일화와 제의 정확

4b의 주상과 4c의 아쉐라 제거를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주상과 아쉐라를 우상 숭배와 연결한다(이를테면 C. Levin, I. W. Provan, J. Pakkala, R. G. Kratz 등).¹¹⁾ 그리고 이것을 제의 단일화와 다른 시기의 신학적 주제로 분류한 제의 정확화와 연결한다. 그래서 4a의 산당 제거를 열왕기의 첫 편집 층으로, 4b과 4c의 주상과 아쉐라 제거를 나중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설득력이 없다. 첫째, 위에서 말했듯이 산당과 주상과 아쉐라는 실제로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열왕기의 첫 편집 층에서 주상과 아쉐라는 언제나 산당과 함께 나온다(왕상 14:23; 왕하 17:9f.; 23:13f.).¹²⁾

둘째, 주상과 아쉐라와 느후스단 이 모두가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 느후스단과 관련하여 쓴 동사와 문맥을 통해 볼 때, 느후스단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d의 동사 “부수다”(כרתה pi.)는 호렘산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모세가 없애는 것을 표현할 때도 나타난다(신 9:21). 4e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느후스단을 제거한 것은 백성이 그것에게 분향하였기(קטר pi.)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본문에서는 백성이 주상과 아쉐라를 숭배했다고 또렷하게 말하지 않는다. 열왕기하 18:4의 ‘아쉐라’는 아쉐라 우상이 아니라 나무 기둥을 가리킨다. 구약성서에서 ‘아쉐라’(אשרה)가 아쉐라 여신과 아쉐라 우상과 나무 기둥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신명기 16:21의 אשרה가 야훼 제단 옆에 있는 나무 기둥 또는 나무를 가리킨다는 것은 보통 인정한다. 열왕기하 18:4에 있는 동사 “찍어내다”(כרת)는 나무 기둥을 뜻하는 ‘아쉐라’에 대한 조치와 딱 들어맞는

11) C. Levin, “Joschija i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ZAW* 96 (1984), 354; I. W. Provan,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86; J. Pakkala, *Intolerant Monolatry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EJ* 76 (Helsinki: Finnish Exegetical Soc., 1999), 167-168; R. G. Kratz, *Die Komposition der erzählend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173, 193.

12) A. Jepsen, *Die Quellen des Königsbuches* (Halle: Niemeyer, 1953), 69; A. Jepsen, “Die Reform des Josia”, L. Rost, hg., *Festschrift Friedrich Baumgärtel zum 70. Geburtstag*, 14. Januar 1958, gewidmet von den Mitarbeitern am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KAT), *ErF.A* 10 (Erlangen: Univ.-Bund Erlangen, 1959), 97-108; M. Noth, *Könige I*, *BKAT* 9,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8), 329;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112, 171, 190-191.

다. 4절에 있는 주상과 아쉐라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산당 제의의 관점에서 제의 단일화에 대한 불순종으로 비판되고 있다.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때 하나님을 아무데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시는 한 곳,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남유다 백성은 여기저기에 산당들을 세웠다(왕상 14:22이하). 산당은 불법적인 제의 장소이며 산당 제의는 잘못된 야훼 제의이다.

셋째, 우상 숭배는 열왕기의 첫 편집 층에 들어 있는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주제이다. 이를테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왕상 12:26이하)와 아합의 바알 숭배(왕상 16:29이하)이다.

간추려 말하면, 열왕기하 18:4의 산당과 주상과 아쉐라와 느후스단 제거에 대한 보고는 히브리 동사 형태나 내용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열왕기하 18:4에서 아쉐라가 관사와 함께 단수 형태로 나오는 것이 눈에 뜨인다. 열왕기에서 산당 제의와 관련하여 아쉐라가 나올 때는 언제나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왕상 14:23; 왕하 17:9f.; 23:13f.). 그래서 여러 사본은 열왕기하 18:4의 ‘하아쉐라’(האשרה)를 복수 형태 ‘하아쉐림’(האשרים)으로 고쳐 읽는다. 이를테면 칠십인역과 탈굼역과 페쉬타와 불가타가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쳐 읽기는 문맥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다.

4절의 האשרה는 뒤이어 나오는 단수 형태의 “놋뱀”(נחש הנחשת)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본문은 히스기야가 제거한 놋뱀이 어떤 특정한 느후스단,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의 놋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놋뱀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수 형태로 표현된 놋뱀과 동사 קטר(pi.)와 동사 형태 *w^eqatal*을 볼 때 놋뱀이 산당에서 분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수 형태의 놋뱀은 다수를 나타낼 수 있고,¹³⁾ 동사 קטר(pi.)는 열왕기에서 산당 제의와 관련해서만 나오기 때문이다.¹⁴⁾ 게다가 *w^eqatal*은 느후스단을 아쉐라와 주상과 산당과 거의 같은 때에 제거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13) E. Kautzsch and W.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völlig umgearbeitet von E. Kautzsch*, 28. Aufl. (Hildesheim: Olms, 1995), § 123 b;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rt Three: Syntax. Paradigms and Indices, subsidia biblica - 14/II*, 2nd ed. (Roma: Ed. Pontificio Ist. Biblico, 1993), § 135 b.c.

14) 왕상 22:44; 왕하 12:4; 14:4; 15:4, 35; 16:4; 17:11; 18:4; 23:5, 8. 왕하 22:17에서는 “다른 신”과 함께 쓰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האשרה는 어떤 특정한 אשר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히브리 관사는 같은 종류에 들어 있는 낱개들의 전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색다르게 표현된 האשרה는 전해 내려온 표현인 단수 형태의 낱뱀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간추려 말하면, 열왕기하 18:4에 늘어놓은 사건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할 때 주상과 아세라와 느후스단을 함께 제거한 것이다.

2.2. 우리말 번역 성서로 본 히스기야의 산당 제거

열왕기하 18:4의 *w^qatal*과 האשרה와 관련하여 우리말 번역 성서를 보면, 다른 외국어 번역 성서들처럼 번역이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다.¹⁶⁾

MT הוא הסיר את־הבמות ושבר את־המצבת וכרת את־האשרה וכחת נחש הנחשת אשר־עשה משה כי ער־הימים ההמה היו בני־ישראל מקטרים לו ויקרא לו נחשתן:

『구약전서』 모든 산당을 폐하며 우상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이전에 모든 구리비암을 부수었스니 그 재식지 이스라엘 자손이 구리 비암을 향하여 분향하고 느후스단이라 닐크르니라

『성경개역』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드러던 낱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재까지 향하여 분향하는 고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닐카렷더라

『개역』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낱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개역개정』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낱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공동개정』¹⁷⁾ 그는 산당들을 철거하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

15) E. Kautzsch and W.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 126 l-m.

16) 영어(JPS, NIV, NKJ, TNK)와 독일어 성서(EIN, LUT, ELB)에는 *w^qatal*의 문장을 각각 ‘and’와 ‘und’로 연결하고 האשרה는 아세라 신상 또는 나무 기둥 또는 아세라로 해석하였다.

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때까지 느후스단이라고 불리우던 그 구리 뱀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번역』¹⁸⁾ 그는 산당을 헐어 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 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 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성경개역』과 『개역』과 『개역개정』에서는 계속해서 ‘~며’가 보인다.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 같은 때에 일어났음을 알려 주는 연결 어미이다.¹⁹⁾ 이 어미는 산당과 주상과 아쉐라와 느후스단이 거의 같은 때에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공동개정』과 『새번역』에서는 ‘~고’로 연결된다. 이 연결 어미는 움직임의 순서와 관계된 것이다.²⁰⁾ 『구약전서』에서는 산당과 우상과 아쉐라 제거는 ‘~며’로 연결하지만 느후스단 제거는 ‘~고’로 연결한다. 이런 연결은 느후스단의 제거가 앞선 세 가지와 다른 때에, 나아가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게 한다.

『성경개역』과 『개역』은 אֲשֵׁרָה를 단수로 옮겼다. 하지만 앞선 “여러 산당”이라는 표현과 연결 어미 ‘~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אֲשֵׁרָה는 특정한 아쉐라 하나가 아니라 다수를 가리킨다. ‘여러’라는 단어가 주상과 아쉐라에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는 『개역』의 “여러 산당”을 “여러 산당들”로 고치지만 주상과 아쉐라 목상은 그대로 단수로 옮겼다.

2.3. 열왕기하 18:4에 대한 한글 번역본의 개정 제안

우리말 번역 성서 가운데 『성경개역』과 『개역』의 번역이 *w^eqatal*과 אֲשֵׁרָה와 관련하여 히브리 성서 본문의 뜻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אֲשֵׁרָה는 신상과 구별하기 위해 아쉐라 목상이 아니라 나무 기둥으로 옮기거나 그냥 아쉐라로 적는 것이 낫다.

열왕기하 18:4의 분석을 토대로 한글 번역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 제안은 무엇보다도 *w^eqatal*과 אֲשֵׁרָה에 관한 것이다.

17)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년). 이 구절은 『공동번역 성서』(1977년)와 같다.
 18) 『성경전서 새번역』(2004년). 이 구절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과 같다.
 19)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참고.
 20)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참고.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면서 돌기둥을 깨뜨리며 나무 기둥²¹⁾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뿔을 부수었다. 그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놋뿔에게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후스단이라 불렀다”(왕하 18:4).

3. 여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3.1. 열왕기상 12:26-32의 문학적 통일성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2:26에서 시작하여 열왕기상 12:32에서 끝난다. 열왕기상 12:33에서는 32절이 부분적으로 반복되면서 새 단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²²⁾

열왕기상 12:26-32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죄를 짓게 되는 동기이고(26-27절), 다른 하나는 그 죄의 내용이다(28-32절). 죄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 맞서 새로운 제의를 만든 것이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마음이 변하여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한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대신할 북이스라엘 제의를 계획한다. 이것을 위해 먼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벧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백성에게 주어 단으로 가져간다(28-30절). 나아가 “산당들의 집”(בית במות)을 짓고 그곳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31절) 새로운 절기를 만든다(32a). 그리고 벧엘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한다(32b-d).

동사 עָלָה와 עָשָׂה가 본문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 עָלָה는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 가는 중심 단어이다. 한편으로는 이야기 전체를 감싸고, 다른 한편으

21) 위에서 말한 대로 ‘아쉐라’로 옮겨도 좋을 듯하다.

22) 왕상 12:32와 12:33을 서로 다른 때에 기록된 구절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M. Noth, *Könige I*, 268-269, 295; W. Dietrich, *Prophezie und Geschicht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FRLANT 10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115-116; B. O. Long, *1 Kings with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terature*, FOTL 9 (Grand Rapids: Eerdmans, 1984), 145; E. Blum, “Die Lüge des Propheten. Ein Lesevorschlag zu einer befremdlichen Geschichte (1 Reg 13)”, E. Blum, hg., *Mincha (FS R. Rendtorff)* (Neukirchen-Vluyn 2000), 40-41 = E. Blum, *Textgestalt und Komposition. Exegetische Beiträge zu Tora und Vordere Propheten*, W. Oswald, hg., FAT 69 (Tübingen: Mohr Siebeck, 2010), 333.

로는 28-32절의 여로보암의 죄를 둘러싼다(27절, 28d, 32b). עשה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제의를 대신할 제의를 만들려고 한 일들을 표현한다. 본문의 짜임새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A. 죄를 짓는 동기(26-27절) עלה
- B. 죄의 내용(28-32절)
 - I. 혼자 계획을 세움(28a)
 - II. 내용(28b-32)
 - 1. 준비(28b-32a)
 - a. 두 개의 금송아지(28b-30)
 - ㄱ. 금송아지 두 개 만듦(28b) עשה
 - ㄴ. 두 금송아지에 대한 설명(28c-e) עלה
 - ㄷ. 하나를 벳엘에 세움(29a)
 - ㄹ. 다른 하나를 단에 나누어 줌(29b)
 - ㅁ. 평가(30a)
 - ㅂ. 백성이 두 번째 금송아지를 단으로 옮김(30b)
 - b. “산당들의 집”(31a) עשה
 - c.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31b) עשה
 - d. 새로운 절기(32a) עשה
 - 2. 실행: 벳엘에서의 금송아지 제의(32b-d) עלה

열왕기상 12:26-32의 문학적 통일성을 따져 보기에 앞서 학자들이 제안하는 맞소라 본문의 고쳐 읽기 두 곳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30b이다. 본문에서 30b의 אהרן은 짝이 없다. 이 절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학자들은 30b을 보충하여 읽기도 한다. “벳엘에 있는 하나 앞에 그리고 단에 있는 다른 하나 앞에”²³⁾ 또는 “단에 있는 하나 앞에 그리고 벳엘에 있는 다른 하나 앞에”²⁴⁾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쳐 읽는 것은 30b의 לפני להך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순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 앞에서 가다”를 뜻한다(창 32:21; 수 3:6; 6:9; 삼하 6:4 참고).²⁵⁾ 30b은 백성이 금송

23) J. Gray, *I & II King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4), 289(각주 g); E. Würthwein, *Das erste Buch der Könige, Kapitel 1-16*, ATD 1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162(각주 3); G. N. Knoppers, *Two Nations under Go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f Solomon and the Dual Monarchies Vol. 2. The Reign of Jeroboam, the Fall of Israel, and the Reign of Josiah*, HSM 53 (Atlanta: Scholars Pr., 1994), 34.

24) I. Benzinger, *Die Bücher der Könige*, KHC 9 (Freiburg i.B.: J.C.B. Mohr [Paul Siebeck], 1899), 90.

25) M. Noth, *Könige I*, 268, 285; R. Kittel, *Die Bücher der Könige*, HK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111.

아지 앞에서 엄숙한 행렬을 지어 단까지 간 것을 말한다. 게다가 29b의 נתן은 금송아지 설치를 뜻하지 않는다. 학자들이 제안하는 고쳐 읽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29a의 שׂים이 보여 주듯이, 이미 벤엘에 금송아지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30b의 לָפְנֵי לַהֲלֹךְ를 “~ 앞에서 가다”로 이해한다면, 30a의 평가는 29b과 30b의 연결을 방해한다. 29절과 30b을 이어 읽으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나는 벤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주어서 백성이 이것을 앞서서 단까지 가지고 갔다고 이해할 수 있다.²⁶⁾

다음으로 31a이다. 31a에는 눈에 띄게 בְּמֹת בַּיִת (“산당들의 집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은 히브리 맛소라 본문에서 이곳에만 나온다. 그래서 학자들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열왕기상 13:32를 따라 열왕기상 12:31a을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 곧 בְּמֹת בַּיִת בְּמֹת (“산당들의 집들”)로 고쳐 읽으면서 את를 빼져 쓸 때 실수로 끼어든 것으로 본다.²⁷⁾ 그러나 목적어를 이끄는 את를 실수로 인한 끼어들기로 보는 것 외에는 고칠 것이 없다. בְּמֹת בַּיִת라는 표현은 산당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벤엘 성소를 가리킨다.²⁸⁾ 이 표현은 27a의 “야훼의 집”(בַּיִת יְהוָה) 곧 예루살렘 성전과 맞대어 쓴 표현이다. 31a의 “산당들”은 한편으로는 ‘추상 개념의 복수’(Abstrakt-Plurale)로²⁹⁾, 다른 한편으로는 “집”의 특성을 자세히 나타내기 위한 표현³⁰⁾으로 볼 수 있다. 곧 31a의 집을 불법적인 산당과 같이 취급한다. 31a의 בְּמֹת בַּיִת는 북이스라엘의 벤엘 성소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은 불법적인 제의 장소를 나타내는 “산당과 같은 집”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 30a는 왕상 12:33-34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와 함께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상 12:30a를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 학자로는 J. A.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Kings*, 2nd ed., ICC (Edinburgh: Clark, 1960), 255; M. Noth, *Könige I*, 272가 있다.

27) J. Gray, *I & II Kings*, 289(각주 h); J. Debus, *Die Sünde Jerobeams. Studien zur Darstellung Jerobeams und der Geschichte des Nordreichs in der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schreibung*, FRLANT 93 (Göttingen 1967), 35; E. Würthwein, *Das erste Buch der Könige, Kapitel 1-16*, 162.

28) L. Kogan and S. Tishchenko, “Lexicographic Notes on Hebrew bamah”, *UF* 34 (2002), 341-342; F. Blanco Wißmann, «Er tat das Rechte ...», 119.

29) E. Kautzsch and W.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 124 a-d.

30) E. Kautzsch and W.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 128 p;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 129 f.

열왕기상 12:26-32의 문학적 통일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30절과 31절 사이에 편집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곧 26-30절보다 31-32절이 나중에 생긴 본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대부분 두 번째 본문이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 데서 시작한다. 31-32절의 주제는 더 이상 금송아지가 아니라 잘못된 제사장 임명과 여로보암이 제멋대로 만든 새로운 절기라는 것이다.³¹⁾ 그러나 32절에는 여전히 금송아지가 발견되고 주제 역시 금송아지 숭배이다. 또한 31-32절에서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고 있다. 28b-32a은 32b-d의 벤엘 성전에서의 금송아지 예배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연관성을 생각하면 31-32절과 26-30절을 서로 다른 시기의 본문으로 나눌 이유가 없다.

26-32*절(30a 제외)에서는 중심 단어인 “올라가다”(עָלָה)(27a, 28c, 32b)와 “송아지들”(עֲגֻלֹּתַי)(28b, 32c)을 통하여 벤엘에서의 금송아지 숭배를 주제로 삼는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밖에 제의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비난의 초점은 금송아지 숭배에 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의 야훼 제의를 대신하여 만든 벤엘의 금송아지 제의는 불법적인 야훼 제의이다. 또한 이방신 숭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들을 우상 숭배(26-29절, 30b)와 산당 제의(31-32절)로 유혹하였다.

간추려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상 숭배와 산당 제의를 분리할 수 없다. 또한 요즘 학계에서 열왕기의 가장 오래된 편집 층으로 분류하는 열왕기상 12:26-30에서 제의 단일화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주된 평가 기준이 아니다.³²⁾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금송아지 숭배이고, 이것은 제의 정화(제 1계명)에 대한 불순종이다.

3.2. 우리말 번역 성서로 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우리말 번역 성서의 서술은 히브리 맛소라 본문을 살펴본 결과와 다르다. 우리말 번역 성서에서는 29b의 נָתַן을 29a의 שָׁמַע과 함

31) A. Jepsen, *Die Quellen des Königsbuches*, 6, 60-61, 102; E. Würthwein, *Das erste Buch der Könige, Kapitel 1-16*, 165-166; I. W. Provan,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82-84; F. Blanco Wißmann, «*Er tat das Rechte ...*», 118.

32) 바벨론 포로 이전, 열왕기의 첫 번째 편집에서는 제의 중앙화가 여로보암의 죄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특히 K. Schmid, “Das Deuteronomium innerhalb der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in Gen-2Kön”, 201-211을 참고.

Dan.

³⁰ Dies wurde Anlaß zur Sünde. Das Volk zog sogar bis nach Dan, vor das eine Kalb.

³¹ Auch errichtete er Kulthöhen ...

LUT³⁷⁾ ²⁹ Und er stellte eins in Bethel auf, und das andere tat er nach Dan.

³⁰ Und das geriet zur Sünde, denn das Volk ging hin vor das eine in Bethel und vor das andre in Dan.

³¹ Er baute auch ein Höhenheiligtum ...

ELB³⁸⁾ ²⁹ Und er stellte das eine in Bethel auf, und das andere gab er nach Dan.

³⁰ Diese Sache aber wurde zur Sünde. Und das Volk zog vor dem einen her bis nach Dan.

³¹ Auch baute er Höhenheiligtümer ...

독일어 번역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특히 29b의 נתן을 29a의 שים과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이다.³⁹⁾ 또한 루터 성서 개정판에서는 31a의 בית בנות을 단수 ‘산당’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2007년에 개정 출판한 Züricher 성서는 아래와 같이 히브리 맛소라 본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번역했다.

²⁹ Und das eine stellte er in Bet-El auf, und das andere brachte er nach Dan.

³⁰ Dies aber war eine Sünde. Und bis nach Dan zog das Volk vor dem einen her.

³¹ Und er baute auch ein Kulthöhenhaus, ...

(1. Könige 12,29-31a).

Züricher 성서에서는 30a가 29b와 30b와의 연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31a의 ‘ein Kulthöhenhaus’는 27절의 ‘Haus des HERRN in Jerusalem’과 대조를 이루면서 열왕기상 12:26-32에서 강조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37) Revidierte Lutherbibel (1984).

38) Revidierte Elberfelder (1993).

39) LXX에서도 29b의 נתן은 “주었다”로 옮겼다(και ἔθετο τὴν μίαν ἐν Βαιθηλ καὶ τὴν μίαν ἔδωκεν ἐν Δαν).

3.3. 열왕기상 12:29-31a에 대한 새 번역 제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말 번역 성서에서 히스기야 산당 제의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w^eqatal*에 알맞은 번역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하여 특히 열왕기상 12:29-31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새 한글 번역이 필요하다. 29절의 *נָתַן*과 *לִפְנֵי הַלֵּךְ*을 성소 건설과 순례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 열왕기상 12:26-32의 초점을 바꾸어 놓는다. 마찬가지로 *בְּמִוּת בַּיִת*을 다른 본문의 비슷한 표현에 따라 고쳐 읽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흐린다. 히브리 맛소라 본문을 살펴본 결과에 따라 열왕기상 12:29-31a에 대한 새 한글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²⁹ 그리고 그는 하나는 벨엘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주었다. ³⁰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를 앞서서 단까지 가지고 갔다. ³¹ 그리고 그가 산당의 집을 만들었다.” (왕상 12:29-31a).

4. 나가는 말

이 글에서는 먼저 본문 분석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산당 제의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본문의 짜임새뿐만 아니라 색다른 표현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왕기하 18:4에서는 *w^eqatal*과 *הַאֲשֵׁרָה*에 대한 이해가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과 산당 제의에 대한 논의에서 결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왕기상 12:26-32에서는 특히 세 가지 표현 *נָתַן*과 *לִפְנֵי הַלֵּךְ*과 *בְּמִוּת בַּיִת*을 본문의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본문 분석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한 열왕기의 기본 문학 층으로서 열왕기상 12:26-29, 30b-32을 얻었다. 여기에서 본디 여로보암은 벨엘에서의 금송아지 숭배와 산당 제의로 비난 받는다. 히브리 맛소라 본문을 살펴본 결과 한글 번역본이 일부 개정되거나 새로 번역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제안한 열왕기하 18:4의 개정 번역과 열왕기상 12:29-31a의 새 번역이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산당 제의와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하여 맛소라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Keywords)

여로보암의 죄, 산당들, *w^eqatal*, 제의 단일화, 제의 정화

Jerobeam's sin, high places, *w^eqatal*, cult-unification, cult-purification

(투고 일자: 2016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Kautzsch, E. and Gesenius, W.,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völlig umgearbeitet von E. Kautzsch*, 28. Aufl., Hildesheim: Olms, 1995.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 『성경원문연구』 38 (2015), 97-118.

Aurelius, Erik, *Zukunft jenseits des Gerichts.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zum Enneateuch*, BZAW 319, Berlin; New York: de Gruyter, 2003.

Benzinger, Immanuel, *Die Bücher der Könige*, KHC 9, Freiburg i.B.: J.C.B. Mohr (Paul Siebeck), 1899.

Blanco Wißmann, Felipe, «*Er tat das Rechte ...*». *Beurteilungskriterien und Deuteronomismus in 1 Kön 12-2 Kön 25*, AThANT 93,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2008.

Blum, Erhard, “Die Lüge des Propheten. Ein Lesevorschlag zu einer befremdlichen Geschichte (1 Reg 13)”, E. Blum, hg., *Mincha (FS R. Rendtorff)* (Neukirchen-Vluyn 2000), 27-46 = E. Blum, *Textgestalt und Komposition. Exegetische Beiträge zu Tora und Vordere Propheten*, W. Oswald, hg., FAT 69, Tübingen: Mohr Siebeck, 2010, 319-338.

Blum, Erhard, “Das althebräische Verbalsystem – eine synchrone Analyse”, O. Dyma und A. Michel, hg., *Sprachliche Tiefe – Theologische Weite*, BThSt 9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91-142.

Camp, Ludger, *Hiskija und Hiskijabild. Analyse und Interpretation von 2 Kön 18-20*, MThA 9, Altenberge: Telos-Verlag, 1990.

Debus, Jörg, *Die Sünde Jerobeams. Studien zur Darstellung Jerobeams und der Geschichte des Nordreichs in der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schreibung*, FRLANT 93, Göttingen 1967.

Dietrich, Walter, *Prophezie und Geschicht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FRLANT 108, Göttingen: Vandenhoeck &

- Ruprecht, 1972.
- Eynikel, Erik,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TS 33, Leiden: Brill, 1996.
- Gray, John, *I & II King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4.
- Hollenstein, Helmut, “Literarkritische Erwägungen zum Bericht über die Reformmaßnahmen Josias 2 Kön. XXIII 4ff.”, *VT* 27 (1977), 321-336.
- Jepsen, Alfred, *Die Quellen des Königsbuches*, Halle: Niemeyer, 1953.
- Jepsen, Alfred, “Die Reform des Josia”, L. Rost, hg., *Festschrift Friedrich Baumgärtel zum 70. Geburtstag, 14. Januar 1958, gewidmet von den Mitarbeitern am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KAT)*, ErF.A 10, Erlangen: Univ.-Bund Erlangen, 1959.
- Jericke, Detlef, *Regionaler Kult und lokaler Kult. Studien zur Kult- und Religionsgeschichte Israels und Judas im 9. und 8. Jahrhundert v. Chr.*, ADPV 39, Wiesbaden: Harrassowitz, 2010.
- Joüon, Paul and Muraoka, Takamitsu,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rt Three: Syntax. Pradigms and Indices, subsidia biblica – 14/II, 2nd ed., Roma: Ed. Pontificio Ist. Biblico, 1993 (1991).
- Keel, Othmar and Uehlinger, Christoph, *Göttinnen, Götter und Gottessymbole. Neue Erkenntnisse zur Religionsgeschichte Kanaans und Israels aufgrund bislang unerschlossener ikonographischer Quellen*, 4th ed., QD 134, Freiburg i.B.: Herder, 1998.
- Kittel, Rudolf, *Die Bücher der Könige*, HK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 Knoppers, Gary N., *Two Nations under Go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f Solomon and the Dual Monarchies Vol. 2. The Reign of Jeroboam, the Fall of Israel, and the Reign of Josiah*, HSM 53, Atlanta: Scholars Pr., 1994.
- Kogan, Leonid and Tishchenko, Serguei, “Lexicographic Notes on Hebrew bamah”, *UF* 34 (2002), 319-352.
- Kratz, Reinhard G., *Die Komposition der erzählend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Grundwissen der Bibelkritik*, UTB 2157,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00.
- Levin, Christoph, “Joschija i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ZAW* 96 (1984), 351-371.
- Long, Burke O., *I Kings with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terature*, FOTL 9, Grand Rapids: Eerdmans, 1984.

- Montgomery, James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Kings*, 2nd ed., ICC, Edinburgh: Clark, 1960.
- Noth, Martin, *Könige I*, BKAT 9,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8.
- Pakkala, Juha, *Intolerant Monolatry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ESJ 76, Helsinki: Finnish Exegetical Soc., 1999.
- Pakkala, Juha, “Why the Cult Reforms in Judah Probably Did not Happen”, R. G. Kratz and H. Spieckermann, eds., *One God – One Cult – One Nation. Archaeological and Biblical Perspectives*, BZAW 405, Berlin; New York: de Gruyter, 2010, 201-235.
- Provan, Iain W.,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ZAW 172,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 Richter, Wolfgang, *Biblia Hebraica transcripta 6. 1 und 2 Könige*, ATSAT 33.6, St. Ottilien: EOS-Verlag, 1991.
- Schmid, Konrad, “Das Deuteronomium innerhalb der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in Gen-2Kön”, E. Otto und R. Achenbach, hg., *Das Deuteronomium zwischen Pentateuch und Deuteronomistischem Geschichtswerk*, FRLANT 20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193-211.
- Spieckermann, H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Stade, Bernhard, “Miscellen. 10. Anmerkungen zu 2 Kö. 10-14”, *ZAW* 5 (1885), 275-297 = B. Stade, *Ausgewählte Akademische Reden und Abhandlungen*, 2nd ed., Gießen: Töpelmann, 1907, 181-199.
- Thomas, Benjamin D., *Hezekiah and the Compositional History of the Book Kings*, FAT 2. 63, Tübingen: Mohr Siebeck, 2014.
- Weippert, Manfred, “Die Petition eines Erntearbeiters aus *Māṣad Ḥāṣavyāhū* und die Syntax althebräischer erzählender Prosa”, E. Blum, hg., *Die hebräische Bibel und ihre zweifache Nachgeschichte (FS R. Rendtorff)*,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0, 449-466.
- Würthwein, Ernst, *Das erste Buch der Könige, Kapitel 1-16*, ATD 1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 Würthwein, Ernst, *Die Bücher der Könige. 1.Kön.17-2.Kön.25*, ATD 1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Abstract>

**Hezekiah's Removal of High Places (2Ki 18:4)
and Jeroboam's Sin (1Ki 12:26-32):
Comparison of Hebrew Bible (MT) and Korean Versions**

Sang-Won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n this paper, I attempt to study how the Korean Bible could help to underst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Old Testament text. For this purpose, I will analyze Hezekiah's cult reform in 2 Kings 18:4 and Jeroboam's sin in 1 Kings 12:26-32, which are recent issues concerning Kings among scholars. The analysis will show that 2 Kings 18:4 is part of the original text, and that 1 Kings 12:26-32 (except 12:30a) is also written by a single author.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narrative about the removal of high places in 2 Kings 18:4 is written at a different period from the destruction of pillars and Asherah. This thesis is, above all, based on Hebrew verbal form *w^eqatal*. However, the verbal form *w^eqatal* expresses that the narrated events of the past took place almost at the same time. Contrary to what some scholars insist, this verb form points out that past events catalogued took place simultaneously. Therefore, 2 Kings 18:4 cannot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literary phases.

In addition, some scholars suggest that the topic of 1 Kings 12:26-30 regarding Jeroboam's sin is particularly disobedience against cult-unification. But the thrust of the text in question is not cult-unification but idolatry of worshipping golden calves. In 1 Kings 12:26-32*, which is literarily unified, Jeroboam is accused of committing idolatry by worshipping golden calves and constructing high places. Therefore, we cannot divide diachronically the narrative of Jeroboam's sin.

Adequate translation of the significant verbal form *w^eqatal* on the issue of text formation already exists in the Korean Bible. But the Korean translation does not exactly reveal the intention of the text. That is why I suggest a new translation of נתן and לפני הלך in 1 King 12:29-30 and בית במוח in 12:31. My suggestion is as follows:

“²⁹ And he set up the one in Bethel and the other he gave to Dan. ³⁰ And this thing became a sin. So the people went, in front of the one, to Dan. ³¹ And he made the house of high place.” (1Ki 12:29-31a).